



5면

미래농업클러스터 핵심기반 구축 본격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음 2월 17일) 제394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 지사,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큰 상처 받은 도민께 죄송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갈 것”
도지사 재출마 의지 천명
법원, 내일 가처분 심리



금품 제공 의혹으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결정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가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제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제명 처분에 정면으로 맞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자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최고 수위의 제명이라는 극단적 처분에 불복하면서도, 당에 대한 애정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전북 도민에 대한 사과도 잊지 않았다. 김 지사는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이 된 금품 수수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명 처분 자체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분홍빛 벚꽃으로 수 놓은 정읍천

화창한 봄 기운으로 가득한 지난 3일 오전, 정읍천변에서 연분홍빛을 띠는 벚꽃이 활짝 피고 있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김 지사가 특히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청년 당원들에 대한 민주당의 처우다.

그는 “청년당원에게 대대비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준 행위로 자신의 제명에 이어, 2인원, 5만원을 받은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을 모두 제가 짴어졌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액을 수수한 청년 당원들에게까지 징계의 칼날이 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분명한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밝히며 전북도지사 재출마 의지를 사실상 천명했다.

당에서 쫓겨난 상황에서도 전북을 향한 정치적 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생생하게 기록된 CCTV 녹화물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김 지사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가처분은 본인의 권리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북도지사로서 또 민주당의 최고 공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대응보다 진정한 반성

이 먼저라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는 7일 가처분 심리를 개최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 지사는 잠정적으로 당원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CCTV 증거를 내세우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법적 공방의 향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지사에게 대한 민주당 경선과 관련, 4일 접수를 받아 8일부터 10일까지 경선을 진행한다.

경선 기일이 촉박한 관계로 전북도지사 경선은 김관영 안개속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이만호 기자

정읍·고창서 벚꽃축제 잇따라

연분홍빛 봄의 향연 ‘만끽’

정읍 벚꽃축제, 체류형 봄 축제로 기획 ‘눈길’
고창 ‘봄, 봄, 봄’, 불거리 등으로 방문객 호응

전북 정읍과 고창에서 벚꽃축제가 잇따라 열렸다.

정읍에서 2026 정읍 벚꽃축제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열렸다.

지난 1991년 시작돼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정읍 벚꽃축제는 정읍천 벚꽃길을 따라 펼쳐지는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축제다. 올해는 ‘정읍과 봄’이라는 메인 슬로건 아래 벚꽃을 봄 문화를 봄, 내일을 봄이라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벚꽃과 공연, 체험과 먹거리가 풍성하게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이자 낮과 밤 언제든지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봄 축제로 기획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낮 시간대 불거리와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채워졌다. 벚꽃길 곳곳에서는 청소년 댄스 동아리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상시 운영됐다. 행사장 내에는 먹거리 부스 13곳과 푸드트럭 8곳을 비롯해 지역 명물 빵을 선보이는 빵빵페스타가 열려 상춘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벚꽃 인증 사진 이벤트, 모바일 보물찾기, 벚꽃 솜사탕 만들기, 어린이 놀이마당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세심하게 배려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됐다.

행사장 일원에는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밤이 되면 벚꽃과 불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색다른 야경을 연출했다.

고창에서도 제4회 고창 벚꽃축제 ‘봄, 봄, 봄’이 같은 날 석정지구 벚꽃 명소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벚꽃이 만개한 축제 현장에는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이 몰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더욱 다채로운 불거리와 즐길 거리로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행사 첫날인 3일 어린이콘서트를 시작으로 군민 음악회와 활력 운동회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특히 화려한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야간 벚꽃길 걷기 행사는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다.

축제 둘째날과 셋째날에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많은 상춘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김영식기자

도, 여름철 재난 대비 특교세 확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하천 정비 등 예방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특별교부세 90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재해 취약시설 정비에 본격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기후위기로 집중호우와 태풍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우기 이전 주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정비·제거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 13개소에 47억6,000만원을 투입해 범람 및 침

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소하천·세천 구간의 붕수 단편을 확보한다. 노후 제방과 호안, 홍수방어시설을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14개 시군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24억1,000만원을 배정해 빗물받이 준설 및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강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고 도심 침수를 사전에 차단한다.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 사업” 24개소에는 18억9,000만원을 투입해 붕괴 위험이 있는 소규모 석축, 옹벽, 배수로 등 생활권 주변 재해 취약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도당, 전북 14개 시군 합동연설회 성료... 온라인 참여 열기 ‘후끈’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14개 시군 합동연설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전북도당 선관위(위원장 박영자)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열흘간 이어진 합동연설회가 당원과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회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도당 진행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도민들의 경선 과정 관심 반영

후보자들이 정책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 참여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관심도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도당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는 구독자 수 증가로 이어지며 경선 과정에 대한 당원과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같은 흐름은 유권자들이 후보자

의 정책과 역량을 직접 비교·검증하려는 참여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후보자들의 온라인 홍보 경쟁도 활발했다. 각 후보들은 연설 장면을 편집한 영상물 SNS에 게시하며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혔고, 일부 지역 합동연설회의 경우 조회 수가 3,500회에 달하는 등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당 선관위는 향후 경선 일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본경선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결선 투표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경선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도민과 당원의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